



주 제:	“ 용서 ”	“성령 강림 대축일”	2008년 5월 11일
복음 묵상:	[요한 20,19-23]	[사도 2,1-11]	[1코린 12,3 나-7. 12-13]

성령강림은 예수님 안에 살아 계셨던 하느님의 숨결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념하는 축일입니다. 성령은 민족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십니다. 인간은 구실만 있으면 서로 간에 장벽을 만듭니다. 민족과 문화의 차이가 있고, 출신지역과 직업의 다양함이 있습니다. 이런 차이와 다양함은 인류의 풍요로움을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차별을 위한 장벽으로 만듭니다. 하느님의 숨결이신 성령도 우리는 그것을 상호간의 장벽과 차별의 구실로 삼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봉사가 있어서 풍요로운 것이지만, 우리의 좁은 마음은 그 다양함을 성령과 결부시켜 하느님이 만드신 차별이라 믿어버립니다. 성령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를 구별하여 성령을 인간 차별의 주범으로 삼는 신심 운동도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장벽과 차별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성령은 하느님의 숨결이십니다. 하느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숨결이십니다. 그분은 예수님 안에 살아계셨고 또한 예수님을 배우는 우리 안에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 되어 살게 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오늘 복음은 그 자녀 됨이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보여주신 용서를 하느님의 일로 받아들이며,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일을 실천하는 데에서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욕심, 허영, 질투, 미움,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발생하는 죄를 하느님의 용서로 극복하면서 하느님 자비의 숨결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게 하는 데에 예수님과 하나 되어 하느님을 아버지로 한 자녀의 삶이 있습니다.  
(부산 서공석 신부님 강론중에서)

1. 성가대 소식

- 최주남 예로니모 형제님과 최 효원도미니카 자매님 한국 여행 즐거이 마치고 5월 7일 돌아오셨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전해 오셨습니다
- 김 효식 필립보 네리 형제님 4일간의 여정으로 동부로 잘 다녀 오셨습니다. 여행중에 기도해 주신 모든 가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이흥진 에레사 자매님 거이 한달간의 고국 방문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안영희 세실리아 자매께서도 5월 15일경에 그동안 한국에서 근무하시던 안호삼 프란치스코 형제님 (테너)과 함께 귀국하실 것이라는 기쁜소식을 가져오셨습니다. 건강히 만날 날을 기대해 봅니다. 모든 일을 잘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알림

- 금주 일요일(5/11)부터 9시 15분부터 15분간 **발성 연습**을 추가합니다. 시간을 지켜서 오시면 그동안 지휘자님께서 준비하신 발성에 관한 자료를 드립니다. 시간을 지켜 주십시오.

**이것만은 지킵시다.**

- 미리 나누어 준 예정표의 성가를 계속적으로 아침에 연습하고 있어오니, 바쁘시더라도 아침 시간을 엄수하여 연습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가대 소식난은 꼭 읽어 보시고 기도중에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의 작은 불편과 시간을 주님께 봉헌하며 환한 주님의 웃는 모습을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If you forgive people’s sins, they are forgiven; if you do not forgive them, they are not forgiven.” (John 20,23)



안식일 다음 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어떤 집에 모여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들어 오셔서 그들 한 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그리고 나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예수께서 다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숨을 내쉬시며 말씀을 계속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 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 있을 것이다."

1분 명상

" 용서 "



예수님, 용서할 수 있도록  
오늘은 꼭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당신의 용서를 받고자 하면서도  
이웃을 용서하려 않으니  
당신께 용서를 청한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죄에 물들었어도  
당신께 돌아가면 틀림없이 받아주신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허나 제가 용서해주어야 할 때는  
얼굴이 굳어지고 맙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부러진 갈대를 꺾지 말고  
연기 나는 심지를 꺼버리지 않도록,

- W. 브레오 -

“용서의 기쁨”-이해인

산다는 것은 날마다 새롭게 용서하는 용기  
용서받는 겸손이라고 일기에 썼습니다  
마음에 평화가 없는것은 용서가 없기때문이라고  
기쁨이 없는것은 사랑이 없기때문이라고 나직이 고백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네요.  
일곱번씩 일흔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마음에 드는 사람뿐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는법을 배우라고-  
이렇게 노력하다보면 하늘문 가까이 이를 수 있겠지요.

수백 번 입으로 외우는 기도보다 한번 크게 용서하는 행동이  
더 힘 있는 기도일때도 많습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고 오해해도 용서할 수 있기를  
누가 나를 속이고 모욕해도 용서할수있기를  
간절히 청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은 용서하는기쁨,용서받는기쁨입니다